



“장애인을 여행의 동반자로 모십니다”

‘헌책’ 과 유기농 식사가 있는 곳, 캘커타
여행의 끝은 ‘마더 테레사 하우스’, 최종 목표는 유기농 농사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1번 출구로 나와 청기와 주유소를 지나 내려가다 보면 외환은행 옆으로 골목이 나온다. 그 안으로 몇 걸음 옮기다 보면 아담하고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길모퉁이로 지나가는 이의 시선을 멈추게 하는 곳이 있다. 헌책방 ‘캘커타’ 그러나 그저 헌책방이 아니다. 또 다른 아기자기하고 몽클한 속내가 그 속엔 들어 있다. 우리가 모르는 ‘특별한 얘기’가 있는 캘커타 안으로 들어가 보자.

연남동 골목의 숨은 진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공간

대표 윤화용 씨가 캘커타를 연 것은 작년 12월 11일. 직업이 ‘여행’과 ‘자원봉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십수 년 동안 오지만을 찾은 그다. 2002년 봄, 인터넷에 ‘녹색배낭여행’이라는 카페를 개설한 것도 함께 할 여행자를 모집하기 위함이었다. 중요한 것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여행’이라는 취지다. 캘커타도 이

러한 활동에 필요한 기금 마련 목적으로 처음 문을 열었다.

윤씨와 함께 캘커타를 운영하고 있는 유해원 씨는 “녹색배낭여행과 화용 씨를 알게 된 것은 내 생애 큰 행운”이라고 말했다.

“제가 화용 씨를 알게 된 것도 여행을 통해서였습니다. 2년 전, 화용 씨의 안내로 7명이 함께 한 인도여행에서였죠. 장애인을 장애인인 아닌 여행 동반자로 생각하며, 함께 길을 떠난다는 그의 생각이 고마웠습니다. 저도 1급 장애인이지요.”

개점부터 오후 4시까지의 유씨가, 이후부터 폐점까지는 윤씨가 가게를 지킨다.

‘녹색배낭여행, 윤씨만이 해낼 일’...모으고 수집한 책들 가득

기자가 찾아가던 이날은 마침 윤씨가 부재중이었다. 하지만 캘커타 매장 구석구석엔 그의 남다른 삶의 결이 진하게 배어 있었다. 매

장을 지키고 있던 유씨에게도 윤씨와 켈커타의 모든 것은 '감동' 자체였다.

유씨는 본래 장애라는 핸디캡을 딛고 무언가를 하고 싶던 차에 우연히 녹색배낭여행을 알게 됐다. "여행, 책, 사진, 환경, 약자聯가 가장 큰 관심사라고 할 화용 씨에게 녹색배낭여행은 반드시 해야 할 일처럼 보였다"는 유씨의 얘기다.

안양에서도 헌책방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윤씨는 그동안 모으고 수집한 책들을 모아 지금의 켈커타를 꾸몄다. 특히 환경에 남다른 관심이 있어 그것과 관련된 책은 녹색테이프를 붙여 따로 분류해 놓았다. 이 외에도 시집, 소설책, 인문서, LP 등도 켈커타 자체 행사인 '일요 자선 헌책방'에서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 필요한 책과 LP를 말하면 윤씨는 다른 헌책방을 통해서라도 손수 구해준곤 한다.

켈커타에 있는 것들은 어느 하나 사들인 것이 없다. 모으고 수집한 것, 남들이 버린 것들을 가져와 쓸모 있게 고친 것들이다. 식사로 판매하고 있는 인도 커리, 샐러드도 가공품이 아닌, 유기농 야채로 요리한 것들이다. 또 전통차 등의 마실거리도 싼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다.

봉사활동중인 인도 켈커타 서 이름 따라

1989년부터 캄보디아, 라오스, 몽골 등지로 오지 여행을 다녔던 윤씨는 여행 일정이 끝날 때마다 인도 켈커타에 있는 '마더 테레사 하우스'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유씨와 함께 한 여행에서도 단체일정을 마치고 헤어진 곳이 켈커타였다. 그래서 헌책방 이름도 켈커타다.

"녹색배낭여행에서는 여행을 가는 곳마다 무언가 남기고, 베풀고 옵니다. 지난 3월 히말라야 베이스캠프까지 다녀오는 여정에서는 내내 쓰레기를 주웠어요. 가기 전 모았던 여행 경비는 절대 남겨주지 않습니다. '여행하고 남은 돈은 여행지에서 모두 기부한다'는 원칙으로 현지 장애인들이나 어려운 어린이들을 위해 쓰고 오지요. 크진 않아도 그들에게 고맙고 소중할 수도 있잖아요."

여행을 다닐 때마다 으레 많이 견도록 한 일정 때문에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에 비해 뒤처지기 마련이다. 그들을 챙기는 건 윤씨 몫이다. 천천히 걸음을 맞추어 걸긴 하지만 장애인이라고 해서 다른 특혜를 주는 건 아니다. '여행자'로서 각자에게 맡겨진 일을 해야 하는 것엔 예외가 없다. 남들과 어울리며 여행조차 가기 두려워했던 장애인들은 여행길에서 자신감과 의지를 얻는다. 그런 경험에서 힘을 얻어 혼자 여행을 떠나는 사람도 있다.

온라인 통해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 장애인에게 일할 기회도

켈커타의 음식준비와 서빙도 장애인들이 담당한다. '장애인에게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복지관을 통해 소개받은 이들이다.

유씨는 "사실 월급을 충분히 쥐어줄 만한 상황은 못 되다 보니, 아직까진 국가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다"며 "애초 켈커타를 개설한 것 자체가 장사 목적은 아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주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다"고 말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러한 의식을 가진 이들이 많다는 사실이다. 현재 녹색배낭여행 온라인 회원은 1,000여 명 정도 되는데 장애인보다 비장애인들이



◀ "제가 화용 씨를 알게 된 것도 여행을 통해서였습니다. 2년 전, 화용 씨의 안내로 7명이 함께 한 인도여행에서였죠. 장애인을 장애인인 아닌 여행 동반자로 생각하며, 함께 길을 떠난다는 그의 생각이 고마웠습니다. 저도 1급 장애인이기도요." 왼쪽이 유해원 씨, 오른쪽이 윤 화용 씨다. (사진제공·대학내일 신문 학생리포터 김유리)

훨씬 많다. 유씨는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은 어울릴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걸 녹색배낭여행을 통해 알게 됐다"고 말했다.

유씨는 인터넷 카페 관리자이기도 하다. "컴퓨터를 잘 사용하지 않는 윤화용 씨 때문에 사이트가 엉망이 돼가는 걸 두고 볼 수 없어서"란다. 여행자 모집과 여행지 선정, 커뮤니케이션이 모두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모임을 가지면 이름보다 닉네임으로 통한다. 유씨는 '대칸', 윤씨는 '코코'다. "그 편이 서로를 격의 없이 느낄 수 있다"는 유씨는 "그러다보니 실제 이름을 모르는 경우도 많다"고 웃어 보인다.

장애인 여행 가이드 양성 계획...

'사하라 사막, 뉴질랜드 자전거 여행도 준비중'

녹색배낭여행은 장애인이면 비장애인이면 누구나 '마음' 하나로 모일 수 있는 열린 공간이다. 실제로 인터넷 게시판에는 "약간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도 의기소침해지고, 여행은 더욱 용기가 나지 않는다"며 함께하기를 바라는 이들이 많다. 여행이 좋고, 사람이 좋아 북적이는 유럽 등지의 관광지보다는 조금 더 소외되고 외진 곳을 찾고 싶어하는 그들을 위해 '코코' 윤화용 씨는 장애인 여행 가이드를 양성하려는 계획도 갖고 있다.

그런 윤씨에 대해 "일반사람들이 관심 이외의 것들에 정성을 쏟고 몰두하기란 쉽지 않은 일인데, 옆에서 본 화용 씨는 보통의 서른네 살 같지 않은 참 특이한 사람"이란 게 유씨가 그린 프로파일이다. 본받을 점이 많고, 희망을 주는 사람이란 얘기다.

요즘도 윤씨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모집된 사람들과 여행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다가오는 11월에는 사하라 사막을 계획하고 있고, 내년 3월에는 인도네시아에서 뉴질랜드까지 이르는 자전거여행을 갈 계획이다. 평생을 '봉사자'로 살고픈 그의 최종목표는 유기농 농사를 짓는 것이다. **▶▶▶**

켈커타 : 322-2738

녹색 배낭여행 : <http://cafe.daum.net/calcuttacoconut>

취재_홍이현기자 | 사진_박신우 기자